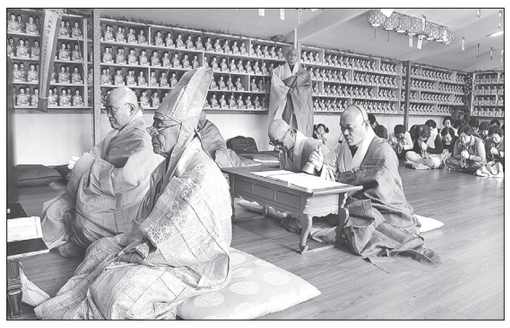


“천불 점안, 자비심 이어지길”

원효종 정읍 미타사, 천불 점안법회

대한불교원효종 전북교구종무원 정읍 미타사(주지 경오)는 4월 21일 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원,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정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미타사에 1000분의 부처님이 나투신 것을 축하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미타사 주지 경오 스님은 “불상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자들이 수행에 대한 원력을 잃지 말자는 뜻을 담고 있다”며 “이번 점안을 계기로 내 안에 부처의 눈을 뜨게 하고, 보살의 자비심을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미타사는 대한불교원효종 전북교구사찰로 신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정읍지역 불자들의 신행활동과 전법활동을 위한 중심도량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공경’ 동화사 잔치마당

4월 21일 대구 동구 공산초 대강당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팔공총림 동화사와 부설 동화복지재단이 4월 21일 동구 공산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북촌경로잔치를 열었다. 잔치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총무국장 벽와 스님, 사회국장 혜천 스님 등 동화사 스님과 박재규 대한노인회 대구동부지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동화사 일대 북촌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일찍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어르신들이 천수를 누리시고 항상 즐겁고 당당한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뜻을 전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동화사 사물놀이 풍물단이 흥겨운 가락을 선사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동화사는 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종 발전 위해 승려 교육 강화”

Interview

조동종 11대 총무원장 덕우 스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승려연수 · 행자교육원 불사
중국서 창종 30년 세미나도
재임 중 복지법인 건립 목표

“조동종 같은 군소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전법, 교육 등이 함께 맞물려 진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종단을 대표하는 교육연수 시설이 없어 효율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0대 총무원장 재임 시부터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교육시설 불사’를 최우선 공약 사항으로 천명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종단 차원에서 승려연수원과 행자교육원 불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동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재임한 덕우 스님은 4월 20일 서울 상계동 총무원에서 앞으로의 종단 운영 방안을 이같이 피력했다. 덕우 스님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말을 이었다.

“포천 신북면에 매입한 2천여 평 부지에 조동종 총림과 승려연수 교육원(400평) 불사를 올 10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원은 종단 스님들에게는 종풍인 묵조선 수행을 하는 기본 선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인을 위해 참선 명상 수련원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우 스님은 경남 밀양의 3천평 부지에 행자교육원도 건립하겠다고 밝힌 뒤 “행자 교육뿐만 아니라 습의 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승려연수 교육원과 행자교육원이 3년에 걸쳐 완공되면, 포천은 충청 이북, 밀양은 충청 이남을 책임지는 조동종 포교 전진 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우 스님은 올해 창종 30년을 맞아, 7월경 중국서 조동종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님은 “그동안 조동종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고 학술적으로 종단 발자취를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늘 아쉬웠다”며 “조동종 관련 사찰들을 답사 연구하고 중국 현지서 세미나를 열어 결과물들을 모아 30년사를 발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우 스님은 11대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과제로 복지법인 설립과 종헌종법 개정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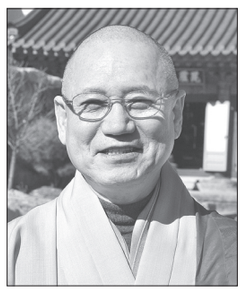
“저희 종단이 그동안 복지 부문을 등한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사회적인 나눔과 복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현시대에 맞게 종헌 종법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모든 종도들이 종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전문 연구원들과 현행 종령집을 검토하면서 논의 중입니다.”

덕우 스님은 1969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보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75년 덕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동종 교육원장, 감찰원장 등의 소임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총무원장으로 조동종을 이끌어 왔다. 임기는 4월부터 총 4년간이다.

한편 조동종은 1989년 5월 서울 평창동 청련사에서 2대 종정 지명 스님을 비롯한 30여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50여개 말사에 총 1300명의 승려가 등록돼 있다.

“재소자 사회복귀 佛法 도움되길”

제37회 교정대상 수상하는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재소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함께 교정활동하는 다른 스님과 불자님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재소자들의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와 KBS, 서울신문사 등이 주최하는 제37회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자로 선정된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사진>은 4월 24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상의 영광을 또 다른 봉사자들에게 돌리며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고담 스님은 2003년부터 경북북부제2교도소 불교법회를 시작하며 교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재소자들을 위해 각종 음식을 후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학문보다는 생활법문 형식으로 전하며 전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명절에 특식을 지원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재소자들의 그리움을 달래는 한편, 혹서기와 동절기에는 각각 생수와 생닭을 챙기기도 했다.

햇수로 17년째, 오랜 시간 재소자들을 위해 활동한 고담 스님에게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물어봤다.

“4~5년 전쯤 교도소에 공인중개사반이 생겼어요. 재소자들도 사회로 돌아가 생활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교재도 지원하고 격려금과 간식을 챙겼어요. 근데 재소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 자격증을 못 땄어요. 재소자들도, 저도 함께 노력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자꾸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같은 고담 스님의 공익활동은 단순히 교정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비롯해 고시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도 꾸준히 펼쳤다. 무엇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찰에서 숙식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을 보탰다. 고담 스님은 수많은 나눔이 신도들의 십시일반 보시 덕분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제 능력만으로는 전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자비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신도님들이 계시기에 이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 상을 받을 뿐입니다. 값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윤호섭 기자

남양주 불암사 효 잔치

4월 23일 경내서… 어르신 1000명 모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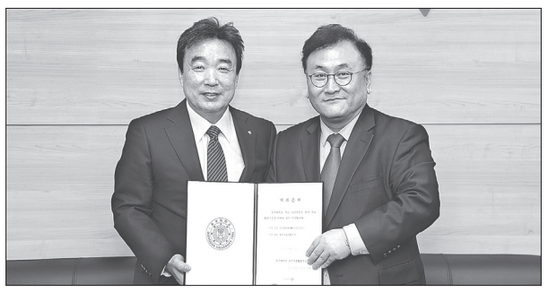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면)는 4월 23일 경내에서 지역 어르신 1000명을 모시고 효 잔치를 개최했다. 효 잔치는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미화 씨의 흥겨운 무대와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공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다. 회주 일면 스님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다”며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관 건립 응원”

동국대생협,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동국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상겸)이 동국대 랜드마크로 세워질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상겸 생협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4월 23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생협은 학내 식당, 매점, 카페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북 불교계 어린이 큰잔치

4월 20일, 어린이 가족 1000여명 동참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성우 · 진성)가 4월 20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어린이 큰잔치는 전북봉축위가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준비했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영유아와 청소년,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1.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2.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3.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